

치 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백제불교의 본찰인 마곡사가 ‘천불의 미소! 천년의 나들이!’ 천불 이운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축하와 격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사를 이루어낸 사대부중의 신심이 스스로의 풍요를 성취하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아울러 수려한 공덕을 얼마나 많은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에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불자들의 신행을 증장하는 뚜렷한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곡사는 오랜 세월동안 부침을 반복해 왔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계각층의 돈독한 불심으로 그 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불법을 수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대의 덕화를 공경하며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근본 도량으로서 불자들의 신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인 영산전은 만세불망지지(萬世不忘之地)라 불리는 곳으로, 역사적으로도 수행자는 물론 시대마다의 학자들이 스스로의 공심과 정의로움을 다지면서 정진하던 뜻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신력과 선대의 수승한 정신문화로 인해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량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여, 그동안 참배하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내며 영산전 천불 이운 대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으로 전하는 봄소식과 같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의 의미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물질의 충족은 더 이상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경쟁과 소외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

침과 같이 우리의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고마운 인연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민족과 함께하고 정신문화를 꽃피운 사찰에서 많은 이들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오늘의 회향은 현대인들에게도 든든한 반려가 되어줄 것이며, 지역공동체를 넘어 불교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발원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중의 어른을 모시고 교구 발전에 진력을 다하는 주지스님의 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융한 교구 화합 속에서 한마음으로 발원한 제6교구 사부대중과 더불어 진솔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문화재청과 지역 관공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여객선 사고로 여리고 애꿎은 생명들이 온 국민과 나라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마주한 안타까움을 깊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다시금 새겨봅니다. 소중한 생명이 밝은 광명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며, 영산전 천불 이운을 깊은 마음으로 거듭 봉축합니다.

불기 2558년(2014)년 4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